

건강 상담실

▶이번호 해답자 / 가나다순

김 종 숙 중앙의대 내과교수 · 의박
박 길 수 서울의대 외과교수 · 의박
서 병 설 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 · 의박
한 문 식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수 · 의박

항문주위 통증없이 부어
침을 맞았더니 누런물이

문 저는 23세의 동춘 청년으로서 신체는 매우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3년 10 경 공연히 항문결 부위가 통증이 없이 부어올라왔습니다.

무심코 지나다가 갑자기 크리스마스경에 오한이 있어 한의사를 찾았더니 상처부위를 수술해 주더군요.

그랬더니 피와 고름이 나와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후 침을 맞은자리가 밥티만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터지곤 또 나왔다가 터지곤 해서 74년 12 월초순경 약방을 갔더니 치루라고 하면서 약을 복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약 양약등 좋다는 약은 모두 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별 진전은 없군요.

나은것 같으면서도 칼자리 흉터가 마이신랍셀 크기로 항문으로 뻗힌 근이 있

음니다. 이로인하여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항문으로도 누런물이 가끔 나옵니다.

수술을 할려고해도 재발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수술은 꼭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물리요법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입할수 있는 특효약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요행이 나아가도 바로 재발한다고하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여쭙고 싶은것은 치루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알고 싶군요.

〈전북 임실군 강진면 이 태 중〉

치료적달뒤 다시 수술을
재발 염려없이 안심

답 귀하께서 말씀하신 증상은 치루(痔瘻)의 정상코스를 밟고 온 것입니다.

치료후 완전히 낫는 경우는 거의 없고 3달후

다시 수술을 받으셔야 하 되겠습니다.

수술이외에 약물치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수술 후 재발할 염려는 없으므로 안심하시어도 되겠습니다.

〈박 길 수〉

촌충때문에 고민중
대변 불수없을정도



저는 촌충이 몸에 기생하고 있어, 문

의 하려고 합니다.

시중약국에서 번마X를 서너차례 복용하였으나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후 1개월동안은 대변을 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에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약명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정연호〉

촌충 종류따라 약달라
함부로 투약해선안돼



귀하께서는 우선 촌충의 종류를 알으신 후 치료를 하시어야 되겠습니다.

촌충의 종류에 따라 약을 달리해야 하니깐요.

민촌충일 경우 보통약을 복용하시어도 관계가 없겠으나 갈고리촌충일 경우 함부로 약을 복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도리어 무서운 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확한 진단을 내리 그에 맞는 약

을 쓰시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복용
하신 연마X는 결코 추천
할 만한 약은 되지 못합
니다.

만약 층이 나오더라도
층의 머리를 세밀히 관찰
하여야만 알수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걱정하
시는 대변과의 관계는 없
습니다.

〈서 병 설〉

X선상에 이상없는데
무릎에서 똑똑소리가

문 18세의 여성 임니
다.

저는 먼거리를 걸으면 무
릎에서 똑똑 소리가 나고
아 파 길을 가다가도 잠깐
쉬었다가 가곤 합니다.

며칠 전에도 무릎에 이상
이 있나하고 보건소에 찾
아가 X-선사진을 찍어보았
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군요.

주위의 사람들은 껴병이
라고도 하고, 관절염이라고
도 합니다.

저의 경우 무리한 일과 장
거리를 걸으면 무릎이 아
픈 이유는 무슨 증상일까
요?

〈충북 진천군 문병면 바사리
신 혜 영〉

연골에 염증 생겼거나
살에 물고일 우려있다

답 귀하께서 찍으신
X-레이는 뼈에
이상이가 있나와 여부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으로
는 걸으면 소리가 나고
아프다고 호소하시었는데

이런 증상은 연골을 다치
어 염증이 생겼다면가 살
에 물이 피어있다면가
기타 만성관절염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X-레이 사진
을 지참하시고 전문의를
찾아가 좀 더 세부적인
진찰을 받으시기를 바랍
니다.

〈한 문 석〉

15년전부터 소화안돼
약쑥데려먹고 소화

문 저는 15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해서 학창시절에는 값싼 소
화제를 복용하곤 했었습니
다.

그러나 항상 소화가 잘
되지않아 중단하였다가 1
년전 부터 약쑥에 생강을
넣어 물을 붓고 고아 환으
로 복용하였더니 상당한 휴
과를 보아 지금도 계속 복
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소
화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약
국에 문의하고 의사의 진
찰도 받았더니 「신경성 위
장무력증」이라고 하는군요.
이에 시중에서 구입할 수

● 질의 환영 ●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기
생충질환 예방 및 치
료에 관한 문의 이외
에도 일반질환에 대한
문의도 환영합니다.

의료계 권위자와 상
담하여 지도해 드리겠
습니다.

있는 적합한 약명과 사용
법을 알고 싶군요

〈경남 김천시 남산동
최 원 달〉

만성위장병 의심된다
치료전에 원인규명을

답 귀하께서 말씀하
신 내용으로는
만성위장병인 것 같으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내
과 전문의를 찾으시어 X
-Ray 등을 촬영해 보시
기 바랍니다. 막연한 치
료보다는 정확한 병명을
받으시어 치료하시는 길
이 빠르실 것으로 압니다.

〈김 종 숙〉

表紙에서

● ● ● ● ●

꿈을 까먹는 소년소녀

하루종일 꽃을 따먹고, 하루 종일 꿈을 까먹
었다. 소년은 배가 불러 가슴을 풀어헤쳤고, 소
녀는 부끄러워 소년의 뒤에 숨었다. 그러나 소
년도 소녀도 얼굴은 붉어졌다. 꽃 내음에 취해
선가. 질은 봄 내음에 취해선가.

〈김 평 화〉